中, 티베트 스님 구금…종교차유 침해 논란

키르티사원 소속의 '게쎄' 스님 2명
달라이라마에 보시금 공양 후 체포
일반 국민 역시 벌금…면회금지도
망명 단체, 혐의 철회와 석방 촉구

박영빈 객원기자



중국당국에 의해 구금형을 선고받은 라충 겐뒨 스님(위), 소남 갸초 스님(아래). 사진출처=RFA

중국 정부가 동부 티베트에 거주하는 지도자급 스님들과 재가신도들에게 구금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라디오 프리아시아(RFA)'와 '티베트 인권과 민주주의 센터(TCHRD)'는 "티베트 불교도들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

TCHRD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구금된 스님들은 동부 티베트에 거주하는 라충 겐뒨 스님과 소남 갸초 스님이다. 두 스님은 모두 현재 스촨성으로 편입되어 있는 동부 티베트 응아바 지역의 키르티 사원 소속이다. 모두 티베트 불교의 최고 학위인 '게쎄(Geshe)' 학위를 취득했으며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치고 사원의 소임자로 활발히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스님은 인도에 망명 중인 달라이라마와 키르티 사원의 방장스님에게 휴대전화 송금을 이용하여 보시금을 공양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긴급 체포됐다. 이후 지난 7월이 돼서야, 각각 3년과 2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스님은 모두 청두 근처 몐양 교도소에 현재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스님들은 체포된 후 3개월 간 행방불명됐다"면서 "가족과 사원 측에서 행방을 알려달라고 하면 단지 미결 구금 중으로 면회가 불가하다는 답만 받았다"고 전했다. 또 스님들의 체포 이후 현지에서 대대적인 검문과 조사가 이루어져 오랫동안 이 소식이 외부에 전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라충 겐뒨 스님은 중국정부가 사찰과 출가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애국교육'에 강력히 반대했다. 소남 갸초 스님 역시 사찰의 주요한 소임자로 중국당국의 부당한 요구에 자주 맞서왔다. 두 스님은 각각 지난해 4월 1일과 3일 밤에 긴급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소남 갸초 스님의 속가 누나로 중국 은행에서 일했던 체링 하모도 함께 체포됐으며, 그의 행방과 상태는 완전히 불명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TCHRD는 스님들의 행방을 조사하던 중 또 다른 사례를 찾았다고 전했다.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68세의 돌마 키 여사 역시 인편을 통해 달라이라마에게 보시금을 공양올린 혐의로 지난 10월 20일간 구금됐으며, 3만 위안(한화 약 560만원)의 벌금과 5년간의 기본 의료보험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다. 중국 당국은 구금기간 동안 법적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돌마 여사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철저한 감시때문에 가족과 자유로운 면회는 금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TCHRD와 망명 티베트인 단체들은 중국당국에게 두 스님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즉시 철회하고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할 것을 촉구 하고 있으며, 행방불명인 체링 하모의 즉각적인 석방과 기본적인 의료권을 박탈당한 돌마 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美, 부처님 가르침 담은 6막 교향곡 공연

시애틀 심포니 수상작
'붓다 수난곡' 교향곡
中작곡자 탄둔 작곡해



'부처 수난곡' 교향곡을 마치고 관객에게 기립박수를 받는 지휘자 탄둔. 사진출처=시애틀 심포니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교향곡이 미국 시애틀에 울려 퍼졌다. 지난 11월 17일 시애틀 지역 일간지 '시애틀 타임즈'와 '노스웨스트 아시안 위클리'는 시애틀 심포니 수상작 '붓다 수난곡(Buddha Passion)' 교향곡 공연 소식을 전했다.

중국의 클래식 작곡가 탄둔(譚盾)이 작곡하고 지휘한 '붓다 수난곡'은 서양식 교향곡과 중국 전통음악을 접목한 총 6악장의 교향곡이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가사로 부처님 가르침과 본생담을 묘사한다. 6막으로 구성된 교향곡 중 제3막에서 비파 연주자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를 떠다니며 천상의 비천을 표현하고, 제 4막 '명상정원'은 달마대사가 면벽수행하였던 숭산의 모습을 음악으로 옮겨 선불교의 기원을 재현했다.

교향곡에서 특히 대중의 찬사를 받는 부분은 '반야심경'을 소재로 한 후반부다. 몽골의 전통 배음창법인 흐미(khoome)의 거장인 바투바겐이 몽골 전통현악기인 마두금을 연주하며 흐미로 반야심경을 노래했다.

붓다 수난곡의 작곡가 탄둔은 "이 교향곡은 본생담 설화를 통해 전해지는 부처님 삶의 일부를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이 곡의 영감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둔황 석굴을 방문했으며, 심야에 몰래 석굴에 들어간 적도 있었다. 매우 무섭고 긴장됐지만 석굴 안에서 부처님의 제세시를 상상하며 교향곡 영감을 받았다"며 작품의 모든 영감이 불교에서 왔음을 밝혔다.

탄둔은 1957년 후난성에서 태어나 문화대혁명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고, 1986년에 컬럼비아 대학교 유학을 계기로 중국을 떠나 뉴욕에 정착했다. 이후 중국영화 '와호장룡'과 '영웅'으로 아카데미 음악상과 그래미 어워드 음악상을 수상했다.

탄둔은 교향곡의 최초의 영감은 돈황석굴 장경동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발견된 고대의 경전들이라고 덧붙였다.

시애틀 미술관 관장 미미 가드너 게이트는 "이 교향곡은 예술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불교의 신성한 공간을 음악으로 만든 것"이라며 "시애틀 시민들이 중국 문화와 불교, 그리고 실크로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멋진 순간이다. 동서 교역로의 중심인 실크로드가 음악으로 변모하여 동서양의 문화 교차를 장려했다"고 평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출가 않고 승려 가능…日 불교계 논쟁 부상

단기강습 · 통신교육으로 득도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우려도

일본 고야산에서 기도하는 스님. 사진출처=pixabay

출가하지 않고 단기강습이나 통신교육을 받아 스님이 될 수 있는 '득도제도'가 일본 불교계에서 논란을 끌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일상서 불교가 필요한 사회 추세들이 합치된 형태라고 주장하는 한편, 전통종파에서는 너무 간편하게 스님이 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득도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출가자 제도는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국가가 규정하지 않고, 각 사찰과 종단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세세하게는 여러 단계가 있으나 대체로 2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은사를 정해 특정 사찰 문하에서 승적을 받는 '득도(得度)'와 더 나아가 전문적인 교육 및 수행을 겸비한 '교사(教師)'다. 득도는 단지 사찰의 법요를 보조하는 등에 그치지만, 교사는 스스로 주지를 맡거나 법요와 포교를 진행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보통 교사부터 사찰에 상주하며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출가'로 보며, 득도의 경우도 사찰에 거주하지만 세속적인 업무도 일부 병행하는 형태로 제도가 자리 잡혀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불교계에서 엄격한 수행과 교육을 요구하는 '출가교사'에 반해 일반적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수행의 길을 걷는 '재가득도' 인정 사찰 및 교단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쿄에 소재한 '도쿄국제불교학원'은 1988년 개설된 이래 조동종과 정토종 등 전통적안 7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강사를 맡아 통신교육과 주말수행으로 1년간 불교의 기본을 배운다. 비용은 24만8000엔(한화 약 240만 원).

학원 측은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입학한 총 2024명 중 799명은 더욱 깊게 수행 하고 있으며, 이중 211명이 재가득도로 승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사회속의 다양한 일로 한계에 직면했을 때 불교의 가르침이 구원이 되기도 한다. 출가자의 삶을 바라지만 현실과의 병행이 어려운 부분에서 재가득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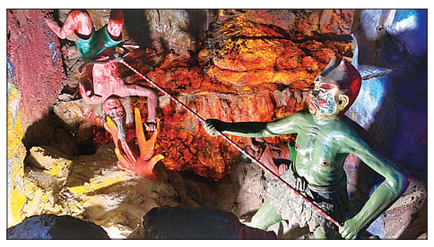
또 기존 종단에서 독립해 종교법인을 설립한 도쿄의 한 사찰은 2020년부터 반나절 동안 교리와 습의를 교육하고서 승적을 주는 '득도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용은 15만엔(한화 약 145만 원). 지금까지 대학교수, 경찰관, 의사 등 주로 전문직 종사자 15명이 득도했다. 주지스님은 "사람을 공경하는 불교의 마음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라며 "누구나 재가에서 득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싶었다"며 득도코스를 개설한 이유를 말했다.

한편 재가득도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강경하다. 전통 불교 교단들이 모인 '전일본 불교회' 측은 "다른 종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득도는 수행의 출발점으로, 이것이 마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처럼 취급되면 실제 엄격한 교육과 수행을 마친 '본래의 스님'까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박영빈 객원기자

싱가포르에 불교 사후세계 재현 테마파크

옛 사업 거점인 '호파빌라'
호랑이 연고 제조사 설립



화염지옥에서 지옥의 포졸이 죄인에게 불에 굽는 형벌을 주고 있다.. 사진출처=CNN

호랑이 연고로 유명한 제약회사 '호표행(虎豹行, Haw Par)'의 옛 사업거점이 불교와 연관된 이색 테마파크로 변모해 화제다. 지난 11월 17일 미국 TV 뉴스 채널 'CNN'은 싱가포르의 호표행 옛 사업거점인 '호파빌라'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소개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호파빌라 테마파크는 중국의 신화, 전설, 역사 등을 담은 놀이공원이다. 그 중 '지옥 박물관'은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10대 시왕들의 재판 광경 및 지옥에서 고통받는 망자들을 묘사한 어트랙션이 각광받고 있다. 세계 최대의 여행 플랫폼 '트립 어드바이저'는 이 곳을 싱가포르의 11번째 명소로 선정했다.

불교의 사후세계를 묘사한 전시 체험관은 관객들에게 펼쳐진 참혹한 지옥 광경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쇠스랑 위의 시체,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머리, 내장을 먹는 악마 등이 3차원 실물 디오라마로 생생하게 표현하여 생전에 지은 죄에 상응하는 형벌과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 관객은 "기억에 뇌리 박힐 정도로 끔찍한 지옥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항상 상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옥 박물관 구성에 참여한 역사학자 제야 아야두라이(Jeya Ayadurai)는 "관객이 죽음에 대한 금기를 없애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옥의 심판을 바라보길 바랐다"면서 "지옥 박물관 속 10대 시왕의 재판과 형벌을 거치며 오늘 우리가 지은 업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 지옥을 통과한 후 관객들이 죽음과 사후세계, 그리고 다른 더 깊은 개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지식을 공유하고 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